

#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A New Paradigm for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 of University Library

남 태 우(Tae-Woo Nam)\*  
정 재 영(Jae-Young Chung)\*\*

### 〈목 차〉

- |                               |                            |
|-------------------------------|----------------------------|
| I. 서론                         | 2. 주제별조직 운영현황              |
| II. 선행연구                      | V. 효율적인 주제별조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 1. 국내 연구                      | 1. 조직의 변화                  |
| 2. 국외 연구                      | 2. 주제사서의 양성                |
| III. 주제별조직의 발전적 개념            | 3. 서비스의 다양화                |
| IV.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조직 유형 및 운영현황 | 4. 교육적 기능의 강화              |
| 1. 주제별조직 유형                   | VI. 결론                     |

### 초 록

주제별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사전 작업과 현실적 고려 그리고 효과적인 주제별 운영에 대한 연구 없이 자료의 주제 구분만을 시도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제별조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37개 대학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효율적인 주제별조직을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 및 형태·각각의 주제별 이용자 수·장서구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주제구분과 함께 주제별조직을 담당할 인력 즉, 주제사서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제별조직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현실에 적합한 주제별조직 모형이 개발되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도서관 현장에서의 노력 즉, 충분한 지원의 확보와 주제사서의 양성·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주제별조직, 주제별 도서관, 대학도서관 조직, 주제사서

### Abstract

Although university libraries run by the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s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many problems are emerging as a result of trying out the subject classification of the sources without an enough advance knowledge, consideration of reality, and the study about effective management of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

Through the research of 37 university libraries run by the system of subject-oriented service, it was proved that for the effective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 the reasonabl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considering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building, the number of users on each subjec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ollection, and the subject librarians, who would take charge of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s are indispensable.

Therefore, the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 to be rooted strongly, the role model of the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 adequate to the reality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efforts of the people on the spot such as acquiring enough supports and training of the subject librarians should be arranged.

Key Words: subject division, subject librarian,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서강대학교 도서관

· 접수일 : 2003. 5. 14 · 최초심사일 : 2003. 5. 25 · 최종심사일 : 2003. 6. 1

## I. 서 론

### 1. 연구목적

대학을 구성하는 기본은 ‘학과’이며 학습의 형태도 학과 즉,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경우 특정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를 바탕으로 도서관을 조직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제별 운영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대학도서관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에 따라 대학도서관 조직형태를 ‘주제별조직’ 형태로 바꾸는 도서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도서관을 주제별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 분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 보다 일정한 주제분야에 속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더구나, 선진국과 같이 분관이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체로 하나의 중앙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 건물내에 인문·사회·과학·기술 등의 주제별로 구분된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도 이용자들의 요구와 정보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구조가 기반이 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서비스방안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에 점차 그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주제별조직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제별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제별조직에 대한 개념을 관련연구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대학도서관 중 주제별조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조사하여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2003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184개 4년제 대학(36개의 국립대학과 148개의 사립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별 조직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대학 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주제구분·소장자료 형태 및 수행업무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주제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제별조직 체제로 운영되는 대학도서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별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을 분석해 보고 주제별조직 체제를 활용한 서비스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조사는 중앙도서관속에 주제별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적인 조직이 기능별 또는 자료형태별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디자인 도서실, 여성학 자료실 등의 대학특성에 따른 하나의 특수자료실만을 운영하거나 분관형태만을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 II. 선행연구

### 1. 국내 연구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주제별조직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있어오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안영주<sup>1)</sup>는 개별대학의 설치학과를 기초로 주제별 열람실을 본관에 설치하고 그 분야의 정선된 참고자료를 개가하여 그 분야의 주제사서에 의해 봉사하도록 하는 주제열람실 제도의 채택을 주장하였고, 한상완<sup>2)</sup>은 바람직한 주제열람실 모형으로 특정주제 분야의 참고도서·정기간행물·비도서자료 그리고 일반도서를 완전 개가식으로 배열하여 이용자가 직접 일차자료에 접근하여 열람, 대출은 물론 배속되어 있는 주제전문가로부터 참고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상배<sup>3)</sup>는 계명대학교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 주제별조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통해 주제별조직의 운영이 각 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용자와 학문영역의 주제에 따른 부문화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강진백<sup>4)</sup>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주제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제별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주제화된 이용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고,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sup>5)</sup>은 논고를 통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성장과정을 추적하고 현재의 도서관 체제를 평가함으로써 대학원 중심의 학습-연구활동의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연구도서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도서관 증축프로그램을 설계하며 물리적

1) 안영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참고봉사의 문제점," 도서관, 21(1966), pp.5-8.

2) 한상완, "주제열람실 제도와 참고, 정보활동론," 국회도서관보, 제16권, 제6호(1979), pp.5-12.

3) 박상배, "대학도서관의 봉사형태의 새로운 방향모색: 계명대학교 신축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협, 4(1993), pp.47-57.

4) 강진백,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편방안: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49권, 제1호(1994), pp.94-112.

5) 부산대학교 공동작업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증축프로그램 설계: 주제도서관을 구상하며," 학기 논고집, 제4집(1994, 2), pp.59-86.

이 아닌 논리적 분산방법 즉, 단일건물속에 여러개의 주제별 도서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준민<sup>6)</sup>은 이용자는 참고사서를 만나는 순간 도서관 전체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을 주제 분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태<sup>7)</sup>는 국립대학도서관들의 직제를 분석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제를 제시하며, 도서관을 주제화하고 각 실마다 단행본·참고도서·학술잡지 등을 주제로 별로 통합하는 주제별 분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훈<sup>8)</sup>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추가되고 변경되는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봉사를 위해서는 주제분야를 몇 개로 구분하고 사서를 주제부문으로 나누어 한 부문에서 수서·정리·참고봉사 등 일체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도서관을 주제별조직 구조로 바꾸기 위한 기본적 원칙부터 세부계획, 자료구분방법과 각각의 일정 및 작업별 소요예산 등의 총체적인 이전계획이 담겨있는 부산대학교 도서관<sup>9)</sup>의 주제도서관 구현을 위한 연구는 실제 주제별 조직구조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도서관에 현실감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이용재<sup>10)</sup>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를 주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예로 설명하고 기본장서의 개발과 참고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지속적인 직원교육만이 주제별 조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영<sup>11)</sup>은 주제별조직 체제를 가진 대학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주제별조직 구조가 국내 대학도서관에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주제별조직 구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sup>12)</sup>를 통해 서강대학교의 실제 주제별조직으로의 변화과정·세부적인 서비스 내용, 그리고 이용자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주제별조직을 구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 정준민, "조직전산화를 통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32권, 제3호(1995), pp.25-37.

7) 최정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직제개편을 위한 시안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4집(1996), pp.1-23.

8) 이용훈, "정보봉사,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도서관문화, 제37권, 제3호(1996), pp.17-29.

9)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구현을 위한 연구(1998, 9).

10) 이용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pp.385-404.

11) 정재영, "주제관형태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참고봉사방안,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0), pp.80-111.

12) 정재영, "이용자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방안: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주제관 형태 참고봉사,"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우수사례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0. 10).

이소정<sup>13)</sup>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해 주제별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학도서관 조직이 각각의 주제에 따라 일체의 모든 도서관 업무와 자료가 분리되는 주제별조직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기능별 조직을 전체조직의 틀로 하고 참고봉사의 기능과 자료의 배치를 주제별로 강화하는 정보서비스의 주제별 부문화부터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재<sup>14)</sup>는 이제까지의 대학도서관의 운영 및 사서에 대한 주제화 논의를 집대성한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대학도서관 주제화 방안을 운영적 측면과 서비스측면, 그리고 자료개발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주제화가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변화에 따른 주제별조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실천사례에 집중되어 있어 주제별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 2. 국외 연구

홀(J. Hall)<sup>15)</sup>은 영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형태를 분석해 대학도서관들이 점차 주제에 기초한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러한 사실은 이용자를 축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츠만(W. L. Guttzman)<sup>16)</sup>은 대학도서관의 주제별조직에 있어서의 총 임금 지출을 기능별 조직체제로 운영되는 대학도서관과의 비교를 통해 주제별조직 체제가 기능별 조직체제에 비해 비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제별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사서에 의한 대학 내 설치된 학과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2)도서관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사서가 참여해야 하고, 3)사서들에 대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담되어야 하며, 4)도서관이 직원채용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5)도서관 위원회에 사서가 참여함으로써 도서관의 전체의견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슨(E. R. Johnson)<sup>17)</sup>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해 1939년부터 1974년까지 대학도서관

13) 이소정,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

14) 이용재,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제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

15) John Hall, "Information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Aslib Proceedings*, Vol.24 (1972), pp.293-302.

16) W. L. Guttzman,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on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stress," *Journal of librarianship*, Vol.5, No.1, (1973), pp.1-8.

17) E. R. Johnson, "Subject divisional organizatio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39-1974," *Library Quarterly*, Vol.47, No.1(1977), pp.23-47.

관의 주제별조직으로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국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에 있어 주제별 조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냄으로써 주제별조직으로의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패디란(D. O. Fadiran)<sup>18)</sup>은 주제별조직 구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석을 통해 주제별조직 체제가 갖는 몇몇 단점들, 즉 직원의 중복문제와 도서관자료 선정에 있어 주제사서의 역할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조직체제를 갖출 수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해 주제별조직 구조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바피아(K. E. Avafia)<sup>19)</sup>는 아프리카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1)사서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2)교수와 사서간의 효과적인 연계 가능성, 3)합리적 장서관리, 4)주제적 이용자 교육실시, 5)이용자 편의 고려, 6)사서의 업무만족도 증가, 7)대학도서관의 적절한 부문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별조직의 장점과, 1)기존의 수업과정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 2)주제전문사서의 채용문제, 3)비경제적, 4)주제전문사서의 진급문제, 5)주제별조직 간의 불균형 등의 단점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통해 주제별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대학도서관 조직체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능별조직과 주제지향조직, 그리고 기능과 주제지향 혼합조직으로 대학도서관 조직을 구분해 각각의 조직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시도한 바스티암필라이(M. A. Bastiampillai)와 윌리엄스(P. H. Williams)<sup>20)</sup>는 주제지향 조직에서 직원의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직원들의 자아개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제지향 조직체제가 대학도서관의 특성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982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친 영국의 대학도서관의 조직형태 변화를 비교 조사했던 마틴(J. V. Martin)<sup>21)</sup>은 대학도서관에 있어 주제별조직의 운영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들은 주제별 조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18) D. O. Fadiran,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14(1982), pp.41-46.

19) K. E. Avafia, "Subject specialization in Afric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Vol.15, No.3(1983), pp.183-205.

20) Marie Angela Bastiampillai and Peter Havard Williams, "Subject specialization reexamined," *Libri*, Vol.37, No.3(1987), pp.196-210.

21) J. V. Martin,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 a second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28, No.3(1996), pp.159-169.

### Ⅲ. 주제별조직의 발전적 개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인터넷과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전체적인 조직체제와 인력의 배치 그리고 서비스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편되어야 한다. 더구나 변화하는 사회적·교육적 환경과 더불어 대학도서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정보환경의 변화 즉, 매체의 전자화, CD-ROM과 인터넷·정보통신을 통한 이용자와 매체간의 직접적인 연결속에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찾기와 변화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별조직 운영으로의 변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직체제는 도서관의 자료를 주제별 또는 학문영역별로 한 공간에 모아두고 사서가 이용자서비스 또는 자료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sup>22)</sup>, 선진국의 경우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관도서관이 있어 자연스럽게 주제관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도서관이나 음악도서관을 비롯한 몇몇 특정 부분의 주제를 제외하고는 중앙도서관 하나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주제별조직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점차 한 건물내에 층별 또는 부분별로 주제별 조직을 갖추고 주제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특정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단행본자료실·참고열람실·정기간행물실 등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구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기능을 극대화하며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가공을 통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도서관이 '주제'나 '학과'중심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입수되는 자료에 대한 처리와 자료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기능별조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조직유형은 자료의 보관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특정주제의 자료가 분산 비치되어 이용자의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정보이용가능성의 지속적인 증가, 이용자 중심적인 시각으로의 변화, 정보증재자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와 같은 주제접근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자료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모든 자료를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

22) 이용재, 전계논문, p.33.

보다는 주제별조직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쉽게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주제별 조직을 갖추는 것이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sup>23)</sup>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주제별조직은 첫째, 보다 밀접한 단위로 이용자들(특히, 신입생들)에게 덜 위협적이고 둘째, 모든 유형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한 주제분야를 조사하기 쉬우며 셋째, 대학 교과과정이 공식적인 것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앙화된 도서관보다 이러한 목적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으며 넷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제전문가가 관리하기에 용이하고 다섯째, 주제분야서지를 편집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여섯째, 직원전체에 대한 자극과 발전을 위한 보다 나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sup>24)</sup>과 함께, 사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수와 사서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합리적인 장서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적인 이용자교육 실시 가능성, 이용자 편의에 대한 최대한의 고려, 사서의 업무만족도, 대학도서관 규모에 맞추어 적절하게 부문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sup>25)</sup> 국내의 주제별조직 형태 도서관은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참고 질문의 주제화·세분화 그리고 전문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 즉,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서로 맞물리면서 90년대 들어 몇몇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제별조직으로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도서관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학술 및 대학도서관에 적합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제별조직 형태의 도서관 서비스가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이자 도서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 대학도서관의 모습을 구상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도서관의 주제별조직이란 분관으로 되어있건 아니면 하나의 건물내에서 이루어지건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위로 학문을 구분한 후 이곳에 해당 주제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서비스 할 수 있는 주제전문지식을 갖춘 주제사서를 확보해 이용자들의 주제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3) KiKuchi, Shizuko, "The Subject specialist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5 (1977), pp.85-95.

24) N. I. Onyechi, "Full academic status for Nigerian University Librarian, through the divisional library/ subject specialist plan," *Libri*, Vol.25, No.3(1975), pp.19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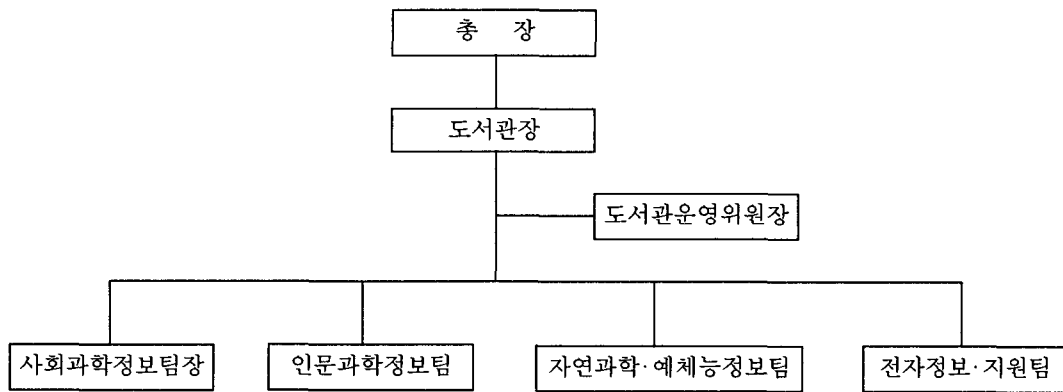
25) 이소정, 전계논문, pp.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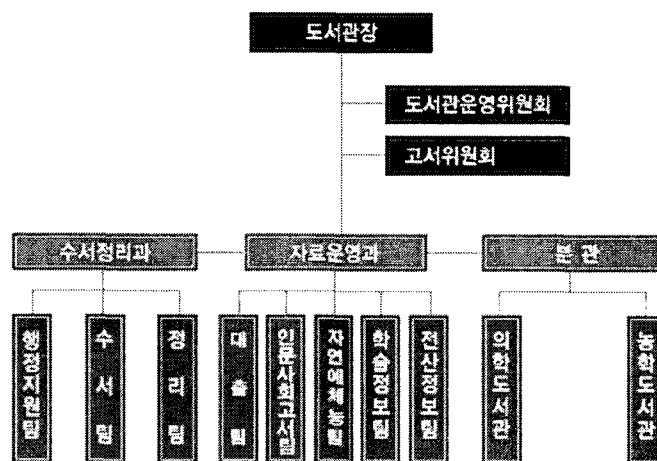
## IV.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조직 유형 및 운영 현황

### 1. 주제별조직 유형

대학도서관 주제별조직의 유형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크게 각각의 주제별조직에서 자료선정·구입·정리 및 열람서비스 일체를 담당하는 일체형<그림 1 참조>과, 수서·정리 등의 일부 기능별 조직이나 정기간행물실 등의 자료형태별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람기능 즉, 참고봉사 기능만을 강화시킨 혼합형<그림 2 참조>의 두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일체형 주제별조직의 예



<그림 2> 혼합형 주제별조직의 예

조사결과 대체로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혼합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주제별조직 운영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구성인원의 소수화·소장자료의 부족·공간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지 못한 편법과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학과 도서관으로 구분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sup>26)</sup>

물론, 인적요소가 충족되고 여러 제반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진다면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수서정책에 반영하고 충원되는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수서·정리업무 등 일체의 업무가 주제별조직으로 나뉘어져 단일 주제분야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도서관 상황과 자료의 효율적 관리란 문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 대학도서관의 상황 즉, 건물의 공간·사서인력·시스템 등에 따라 개개 도서관에 적합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공간이 충분히 넓고 주제사서가 충분하다면 모든 유형의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는 것이 주제별조직 서비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지만 주제별조직을 위한 공간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주제별로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리상의 효율성 문제를 들어 자료를 유형별로 나누고 시스템상에서 주제별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sup>27)</sup>

따라서, 도서관의 규모와 장서량, 그리고 인적자원의 부족 등의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완전형 주제별조직보다는 이용자봉사의 강화라는 주제별조직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람과 참고봉사업무에 집중하는 혼합형조직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런 주제별조직에 대해 이용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는 조직체제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서강대학교 도서관에서 1998년 11월에 조사한 이용실태조사<sup>28)</sup>에 따르면 주제별조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77.1%(517명)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4.1%(28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49%(75명)의 응답자가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10%(17명)만이 불편하다고 답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대체로 주제별조직 체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제별조직 운영현황

주제별조직 체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선진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26) 남태우,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분관제도에 관한 고찰,"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3집(1995), pp.18-19.

27) 강혜영, 대학도서관 주제담당사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pp.30-31.

28) 서강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1998).

29)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 보고(1998).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요구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별조직으로 운영되는 대학도서관의 현황 조사는 의미가 있다.

조사는 8일간(2003년 4월 18일~4월 25일)이루어졌으며 전국 184개 대학(36개의 국립대학과 148개의 사립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관 조직도를 통해 주제별조직을 파악하고 해당 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주제구분·소장자료 형태 및 수행업무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84개 대학도서관중에서 주제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표 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37개 도서관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조사결과를 1986년 정진식의 조사를 시작으로한 5차례의 과거조사들과 비교해보면 주제별조직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의 수가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주제별조직 형태 대학도서관 수 (2003년 4월 현재)

연구자 (조사연도)	주제별조직 형태 대학도서관 수
정진식(1986)	4 (서울소재 대학만을 대상으로 조사)
강혜영(1999)	11
정재영(2000)	13
이소정(2001)	19
정재영(2003)	37

<표 2> 각각의 주제별조직 수행업무 범위

수행업무	도서관 수
열람, 참고봉사	17
열람, 참고봉사, 수서	3
열람, 참고봉사, 대출	5
열람, 참고봉사, 정리	4
열람, 참고봉사, 정리, 수서	4
열람, 참고봉사, 정리, 대출	1
열람, 참고봉사, 수서, 정리, 대출	3
합 계	37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는 <표 2>에서와 같이 열람과 참고봉사만을 담당하는 대학도서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많은 도서관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참고봉사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주제별조직에서 수서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주로 자료선정업무만을 맡고 있었다.

주제별조직의 명칭은 '자료실(20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문과학실이나 자연과학실과 같이 학문분야에 '실'이라는 명칭만을 붙이는 경우(7개 도서관), 그리고 '열람실(4개 도서관)', '정보실(1개 도서관)', 자료관(1개 도서관) 도서관(1개 도서관) 기타(3개 도서관)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주제별 조직 구조

주제별 조직 구조	대학 수
2실(관)	8
3실(관)	17
4실(관)	7
5실(관)	3
6실(관)	1
합 계	37

운영하고 있는 주제별조직구조 즉, 주제구분 수는 <표 3>에서 보여지는것과 같이 3개의 실(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주제별조직의 구분은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했다가 보다는 도서관의 크기와 장서의 소장현황에 따른 것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4개 이하의 분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주제실(관)의 수 만큼 주제사서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주제별조직에서의 효과적인 주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은 주제별 조직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어 주제별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주제영역을 통, 폐합내지 다시 기능별 조직구조로 환원하는 예들로 나타나고 있다.<sup>30)</sup>

따라서, 주제별조직의 구분에 있어 건물의 형태·각각의 주제별 이용자 수·장서구성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주제를 담당할 사서의 수에 대한 고려 즉, 인력의 확보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각의 주제별조직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를 보면 <표 4>와 같이 단행본만을 소장하거나 혹은, 단행본과 참고도서만을 개별 주제실(관)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관이 가장 많았다.

〈표 4〉 각각의 주제별조직 소장자료 형태

소 장 자 료	도서관수
단행본	14
단행본, 참고도서	13
단행본, 연속간행물	1
단행본, 비도서자료	1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6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2
합 계	37

30) 실제로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해 주제별조직을 통, 폐합하였다.

## V. 효율적인 주제별조직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효과적인 주제별조직의 운영과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직의 변화

대학도서관의 조직체제는 자동화와 전산화의 도입으로 반복 업무와 수작업 시스템의 한계성이 극복되고 경영경비의 절감 그리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봉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가능성의 제기와 도서관운영의 시각이 이용자중심으로 옮겨지지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정리·배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주던 자료중심·보관 중심적 역할에서 자료조사 및 정보활용 교육 그리고 이용중심적·서비스중심적 역할로의 변화에 따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대부분 이용자 봉사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도서관측의 자료관리나 기능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한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부서도 자료유형별이나 기능별로 조직되어 왔다.

즉,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입수되는 자료에 대한 처리와 자료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기능별조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조직유형은 자료의 보관이나 관리적 측면에서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용자의 경우 원하는 주제의 자료를 찾는 데 있어 불편함과 시간적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효과적으로 관련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제'나 '학과' 중심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으로 강진백<sup>31)</sup>은 도서관 조직의 개편을 주장하며 이용자군과 주제군에 알맞은 학문영역에 따른 부문화에 자료의 유형과 테크놀로지의 유형을 가미한 측면적인 조직구조 즉, 전통적인 수서·정리·대출·참고봉사·연속간행물 등을 개편해 인문과학자료실·의학자료실·법률자료실·농학자료실·고서실·시청각자료실로의 일대

31) 강진백, 전게서, pp.94-112.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상완<sup>32)</sup>은 도서관이 폭넓은 참고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분산화되는 경향을 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인문과학자료실·사회과학자료실·자연과학자료실로 나누고 모든 일반도서관자료를 분산하는 형태의 도서관 경영을 주장하였다.

또한, 마틴(J. V. Martin)이 영국대학도서관의 주제별조직 유형을 1982년과 1996년에 비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직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기능별 범주가 6개 도서관, 선임직원들은 주제에 의해 나누어진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중앙화된 토대에서 운영되어지는 나머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원적(Dual)범주가 29개 도서관, 선임직원의 일부 또는 모두가 주제에 의해 분할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앙화된 토대에서 운영되는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혼합형(Hybrid)이 4개 도서관, 선임직원들 대부분이 주제에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보조직과 사무직의 지원을 받는 중간등급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3단계(Three-tier)범주가 2개 도서관, 선임직원과 일반직원으로 구성되어 중앙도서관과 완벽하게 기능적 위치적으로 분리된 주제전문팀이 있고 이 팀들은 중앙화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조직의 지원을 받게 되는 주제구분형(Subject divisional)이 3개 도서관이었다. 이는 1982년의 조사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제사서들이 주제를 근거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이원적·3단계·주제구분형 범주가 28개에서 34개 도서관으로 늘어난 반면, 주제사서가 전혀 없거나 또는 주제를 근거로 한 책임들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기능별·혼합형 범주가 33개 도서관에서 10개 도서관으로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sup>33)</sup>

이 조사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영국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계속 주제별조직 체제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혼합형 범주까지 계산한다면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이 주제별조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황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과 같이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기능별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고봉사의 기능만을 강화해 정보자료 즉, 단행본·참고도서·연속간행물 혹은 논문을 주제로 구분하고 주제사서가 이를 토대로 주제서비스를 수행하는 혼합형(또는 과도기형)과, 일체의 도서관 자료를 주제로 나누고 인원도 주제별로 나누어 배치해 각각의 주제별조직에서 모든 도서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체형의 두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별조직으로의 조직체제 개편을 위한 단계적 순서는 첫째, 새 도서관 건물에 대해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출·참고·수서·정기간행물 등 기존의 부서들을 대신할 부분들을 설정하여 재조직하고 둘째, 학부를 토대로 설립된 분관이라는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셋째, 학부보다는 학과에 봉사할 작은 장서를 가진 많은 도서관을 목표로 하

32)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활동 영역확장론,” 도협월보, 제13권, 제6호(1972, 6), pp.12-13.

33) John, V. Martin, *Ibid.*, p.164.

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4)</sup>

또한, 주제별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분석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업무체계 둘째, 지속적인 재정지원 보장 셋째, 도서관 장서의 질적·양적 성장 가능성 넷째, 특정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나 특수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다섯째, 각각의 주제별조직의 소장 자료 형태와 중복구입의 범위 고려 여섯째, 효율적 공간배치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 시행 일곱째, 직원조직의 개편 및 인력충원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sup>35)</sup>

어찌되었든 현대 도서관이 이용자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 주제별 조직구조는 약간의 문제점<sup>36)</sup>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sup>37)</sup>

전체적인 모형은 궁극적으로는 일체의 모든 도서관업무가 분리되는 일체형 주제별조직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대학 도서관 현실과 물리적 지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수서·정리업무 등에 있어서는 기능별조직을 유지하면서 참고봉사의 기능을 주제별조직구조로 강화하고 수행업무와 주제구분, 그리고 소장자료는 개별도서관의 사정과 인력확보를 감안해 결정하는 혼합형 주제별조직 구조가 바람직해 보인다.

## 2. 주제사서의 양성

주제별조직의 운영은 주제적 지식을 갖고 주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주제사서의 충분한 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주제별조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주제지식을 가진 사서가 부족하다는 점, 주제별조직을 담당할 사서와 직원에 대한 전문적 주제지식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제별조직 형태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에도 주제자료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주제별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수의 주제사서 양성과 확보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제별조직의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제사서의 확보에 대한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서구의 이론과 우리 도서관 현장을 그대로 비교함으로써 서구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추상적인 해결방

34) N. I. Onyechi, *Ibid.*, pp.190-193.

35) 이소정, 전계논문, p.59.

36) 예를 들어 ①자료의 중복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②특정자료(통계자료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자료 등)가 인위적인 자료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전문분야의 주제사서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④질문할 분야가 애매할 경우 이용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⑤참고봉사 책임이 분산된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7) Marie Angela Bastiampillai and Peter Havard Williams, *op. cit.*, p.208.

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 직접 응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주제사서 양성과 확보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다.

주제사서의 자질로는 주제적 서비스를 위한 철저한 자료파악과 이용자 봉사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제배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주제분야나 관련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지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사서와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가 제정한 한국도서관기준 내의 대학도서관기준<sup>38)</sup>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연구직으로서 주제전문가를 적어도 단과대학 1명 수준으로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전문가는 주로 도서관 이용지도·독서지도·자료의 분석·서지적 연구·참고문헌 선정 지도 및 해설·논문작성지도의 책임 외에도 교과과정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재<sup>39)</sup>는 한국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주제사서는 포괄적인 주제분야(예컨대,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자료를 담당하고, 담당분야의 이용자 및 서지 연구·출판동향의 파악·참고봉사·자료선정 및 장서평가 활동을 통해 담당 주제분야의 '서지적' 지식을 축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주제사서의 양성을 위해 대학도서관 내부의 해결책으로 계속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러한 사서의 활동이 업무개발과 이용자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측면에서 주제서지과목의 강화와 사서자격증에 주제전공분야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그리고 특정 주제분야의 서지를 연구하는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이 대상학과를 위해 서지적 지식과 정보기술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은 이용자연구와 주제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문헌정보학과와 대상학과가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40)</sup>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것만으로 대학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주제분야를 담당하는 주제사서가 되기 위해 다른 분야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으며 주제사서를 특칭하여 모집하는 도서관도 거의 없고 문헌정보학과에서 주제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용해온 것도 아니며<sup>41)</sup>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사서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현실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대학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비중이 말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사서의 업무개발과 계속교육은 이용자만

38)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39)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p.282.

40) 이용재, 전제논문, pp.173-182.

41) 이용재, 전제서, p.303.



족과 대학도서관 조직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체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주제사서의 양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딜론(R. H. Dillon)<sup>42)</sup>은 도서관학 교육기관이 일반사서(generalist)를 기르는 현행 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한 전문주제에 정통하며 도서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specialist)를 기르는 혁신적인 제도가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것은 특정 주제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입학시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주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교육제도를 보완하여 도서관학 석사학위 이후과정을 도입하여 여기에서 전문주제분야의 지식과 서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제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명대학교 도서관이 신축된 후 효과적인 주제별 봉사형태를 갖추기 위해 마련한 주제사서양성 계획<sup>43)</sup>을 보면 기존 사서들에게 다른 학문의 전공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고 도서관업무의 특성에 맞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사서들의 주제배경을 고려하여 미비한 주제분야의 사서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장사서를 다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주제사서로 양성하는 방안과 적극적인 주제사서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학자들의 주제사서 양성에 관한 방법들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상황을 바탕으로 주제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학과와 대학도서관현장이 연계된 산학협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장 사서들을 정규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제사서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사서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현장에서 계속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과 이론을 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학계와 현장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자 현장에 있는 사서를 주제사서로 육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와 대학원과정에 각 대학별로 특화된 주제서지분야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대학별로 한 두개의 주제서지 과목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관한 주제사서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다. 즉, 어학·문학·공학 좀더 세분화 한다면 법학·경영·경제·의학관련 주제서지 과목을 개설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주제사서를 양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헌정보학의 미래를 위해 문헌정보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42) Richard H. Dillon, "The Phantom of the Library : The Creative Subject Specialist," *Library Lectures*, No.9-16. ed. Caroline Wire(Baton Rouge : Louisiana State University Library, 1971), p.103.

43) 박상배, 전게서, p.55.

셋째, 다양한 차원에서 주제사서들간의 협력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각 주제와 관련한 참고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간의 모임을 주선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을 공식화 한다면, 주제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주제구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축척하고 있는 경험이나 주제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주제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주제사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워크숍 및 정기적인 Round-Table을 구상하고 연락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sup>44)</sup>

이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제사서 양성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주제별조직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서비스의 다양화

주제별조직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도서관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과 지도, 상담기능을 포함하며 각종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 되어지고 시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특히 서비스의 주제적 세분화 그리고 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의 구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주제별로 자료가 축적되어진 도서관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주제관련 자료를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제사서에 의한 주제실(관)의 자료적 특성과 구조,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해당주제의 교수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기초로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한 주제를 파악하여 그 분야의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적합성과 관련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적절한 분량을 결정해 제공하는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정보의 제공 역할과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맞춤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 홈페이지에 주제사서가 주제관련 서지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사이트를 소개하며 신간정보를 제공하고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참고질문을 On-line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주제별 가상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조직이나 장서량에 의존하던 대학도서관 기능을 접근과 활용이라는 새로운 모형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며, 도서관의 역할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자,

44) 현재 수서, 정리, 연속간행물, 참고/열람, 상호대차, 전산의 기능별조직을 바탕으로 구분되어 현장사서들이 서로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서서커뮤니티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별조직구분에 더해 주제별조직구분에 따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나눈 주제사서간의 커뮤니티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

주제별조직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4. 교육적기능의 강화

다양한 정보원의 출현과 보급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자료에 대한 소개와 효과적인 활용을 돕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보다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용자교육 정도인 경우가 많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sup>45)</sup> 이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되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서관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그런 노력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 및 이용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도서관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부터 각각의 주제별 조직을 담당하는 주제사서가 중심이 되어 각종 주제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료나 학습에 필요한 깊이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교육까지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교육과정도 이용자층과 정보의 종류, 주제의 구분에 따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ACRL에서는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에 대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것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접근하며 정보와 그 출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한 정보를 자신의 지식기반에 통합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적·법적·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에 윤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6)</sup> 따라서 대학교육의 목적도 평생교육을 위한 공식적 학습기회의 제공과 독자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정보이용능력을 교육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또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주제별조직 체제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5) 최은주의 분석에 따르면 98년 전국적으로 장서수 20만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8곳(14.8%)에 지나지 않았고, 수시로 원하는 이용자에게 교육한다는 대학도서관이 22곳(40.8%)을 차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유인물로 대체(18곳, 33.3%)하거나, 아예 없는 곳(6곳, 11.1%)도 있었다.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업무의 CD-ROM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현황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6), p.47.

46)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ited 2003.4.27]  
[http://www.ala.org/Content/NavigationMenu/ACRL/Standards\\_and\\_Guidelines/Information\\_Literacy\\_Competency\\_Standards\\_for\\_Higher\\_Education.htm](http://www.ala.org/Content/NavigationMenu/ACRL/Standards_and_Guidelines/Information_Literacy_Competency_Standards_for_Higher_Education.htm).

정보 활용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화된 정보활용교육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준별, 주제별로 다양화된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주제별로 정보활용교육을 세분화하고 이를 다시 수준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질적인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의 확보라는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교육담당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과수업과의 연계교육방안을 들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필수과목이 아닌 이상 학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사서의 문제와 국내 도서관상황에서 볼 때 요원한 일이고 보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사서와 교수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학과수업연계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즉, 주제별조직을 담당하는 주제사서가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당수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의 소개와 검색방법 그리고 검색한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이르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교과목의 연계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고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과 함께 정보활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와의 인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학점인증제 정보활용교육의 실시를 생각할 수 있다. 대학이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수준별로 이루어지는 정보활용교육을 고안해 이를 일정기간 이수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구상할 수도 있다.

즉,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교수와 사서의 참여를 통해 개발하고 도서관의 주제사서가 중심이 되어 강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사서의 육성, 그리고 대학당국과 도서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교수와 사서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의 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적 역할의 강화는 이용자들에게 주제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주제사서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들은 주제별조직 대학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들 중의 일부일 뿐이며 서비스의 도입은 철저한 이용자에 대한 파악과 사전 조사 그리고, 개별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되어야 한다.

## VI. 결 론

대학의 기본구성과 학습 형태 그리고, 이용자들의 참고질문이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 도서관이 주제를 기초로 조직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수행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도서관을 주제별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참고봉사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 일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주제에 따라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배치하고 주제적 지식이 풍부한 주제사서가 참고질문을 해결하고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주제별조직 구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있어 분명 매력적일 것이다.

이러한 효과와 장점을 살리고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제별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184개 대학도서관 중 37개 도서관이 주제별조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형태는 열람과 참고봉사만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대체로 3개의 주제로 주제별조직을 구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가장 많았다. 각각의 주제별조직의 소장자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단행본 혹은 단행본과 참고도서만을 주제별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결여와 충분한 사전 작업, 현실적 고려 그리고 효과적인 주제별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 없이 자료의 주제적 구분만을 시도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주제별조직 체제의 기획단계에서 건물의 형태·각각의 주제별 이용자 수·장서구성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제별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주제사서의 수에 대한 고려 즉,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도입단계에 있는 주제별조직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현실에 적합한 주제별조직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충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확보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구조, 주제사서의 양성·확보 방안 그리고, 주제별 조직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분된 교육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진백.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편방안 :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49권, 제1호(1994), pp. 94-112.
- 강혜영. 대학도서관 주제담당사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 남태우.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분관제도에 관한 고찰." 국립대학도서관보, 13(1995), pp.1-24.
- 박상배. "대학도서관의 봉사형태의 새로운 방향모색: 계명대학교 신축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협, 4(1993), pp.47-57.
- 부산대학교 공동작업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증축프로그램 설계: 주제도서관을 구상하며." 학기논고집, 4(1994), pp.59-86.
-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구현을 위한 연구(1998).
- 서강대학교도서관.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1998).
- 성균관대학교도서관.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 보고(1998).
- 안영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참고봉사의 문제점." 도서관, 21(1966), pp.5-8.
- 이소정.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
-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방안." 도서관학논집, 29(1998), pp.273-311.
- \_\_\_\_\_.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pp.385-404.
- \_\_\_\_\_.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제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
- 이용훈. "정보봉사,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도서관문화, 제37권, 제3호(1996), pp.17-29.
- 정재영. "주제관형태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참고봉사방안."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0), pp.80-111.
- \_\_\_\_\_. "이용자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방안: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주제관 형태 참고봉사."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우수사례집(2000), pp.175-219.
- 정준민. "조직전산화를 통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32권, 제3호(1995), pp.25-37.
- 최은주.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업무의 CD-ROM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현황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pp.35-54.
- 최정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직제개편을 위한 시안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14(1996), pp.1-23.

-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활동 영역확장론." 도협월보, 제13권, 제6호(1972), pp.7-14.
- \_\_\_\_\_. "주제열람실 제도와 참고/정보활동론." 국회도서관보, 제16권, 제6호(1979), pp.5-12.
-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 <[http://www.ala.org/Content/NavigationMenu/ACRL/Standards\\_and\\_Guidelines/Information\\_Literacy\\_Competency\\_Standards\\_for\\_Higher\\_Education.htm](http://www.ala.org/Content/NavigationMenu/ACRL/Standards_and_Guidelines/Information_Literacy_Competency_Standards_for_Higher_Education.htm) [cited 2003.4.27]
- Avafia, K. E. "Subject specialization in Afric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Vol.15, No.3(1983), pp.183-205.
- Bastiampillai, Marie Angela and Peter Havard Williams. "Subject specialization reexamined." *Libri*, Vol.37, No.3(1987), pp.196-210.
- Dillon, Richard H. "The Phantom of the Library : The Creative Subject Specialist." *Library Lectures*, No.9-16. ed. Caroline Wire(Baton Rouge : Louisiana State University Library(1971).
- Fadiran, D. O.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14(1982), pp.41-46.
- Guttsman, W. L.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on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stress." *Journal of librarianship*, Vol.5, No.1(1973), pp.1-8.
- Hall, John. "Information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Aslib Proceedings*, Vol.24 (1972), pp.293-302.
- Heaney, H. "Subject divisional organization : the standard still files." *Library Review*, Vol.40, No. 2/3(1991), pp.21-26.
- Johnson, E. R. "SubJect divisional organizatio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39-1974." *Library Quarterly*, Vol.47, No.1(1977), pp.23-47.
- Martin, J. V.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 a second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28, No.3(1996), pp.159-169.
- Onyechi, N. I. "Full academic status for Nigerian University Librarian, through the divisional library/ subject specialist plan." *Libri*, Vol.25, No.3(1975), pp.190-193.
- Shizuko, KiKuchi. "The Subject specialist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5(1977), pp.85-95.
- Woodhead, P. A. and J, V. Martin.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a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Vol.14, No.2(1982), pp.93-108.